

불교학 초석 다지는 기초자료 출간 활기 띤다

각종 사전 및 도서목록 편찬 잇달아... 일부선 전산화 작업도

한 나라의 문화수준을 알려면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사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고 한다. 그 명제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 불교문화는 “얼굴을 들지 못”하는 저열한 수준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불교는 우리 민족에게 친숙한 문화이자 종교일 뿐 아직껏 학문적 연구의 대상은 아닌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불교·불교학관계 사전은 「불교사전」(역경원, 1961), 「한국불교대사전」(보령각, 1982), 「불교학대사전」(홍법원, 1988) 3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대부분의 내용이 일본의 사전을 ‘베껴’ 것으로 알려져 있는 형편이다.

그러한 불교계에서 바야흐로 사전편찬 붐이 일고 있다. 올해 안에 10여종의 사전이 출간될 예정인 것이다. 특정한 재정적 도움과 전문학자들의 조직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오래 전부터 성실함 하나만으로 사전편찬을 준비해 오던 이들의 집념이 ‘우연히도’ 앞다투어 빛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 현상에 대해 불교출판계 내부에서는 “그 동안 폭넓게 학문적 기초와 성과를 쌓아온 불교학계가 그 자체로 관련용어나 개념의 체계적 정리를 요구하는 상황이 됐고 불교전문출판사들 또한 방대한 인력 및 재정소요를 극복, 판로확보에 어느 정도 긍정적 전망을 갖기에 이른 현상을 반영하는 것”(「중앙일보」, 1월18일자)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나 사전집필능력이 있는 전문학자나 학승이 태부족한 현실에서 과연 이 사전들이 현대 불교학의 수준이냐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불교출판계의 활발한 사전편찬작업

불지사는 올해 안에 5종의 사전을 출간할 계획이다. “우리 손으로 쓰고 엮은 국내 최초의 선불교 사전”으로 등재될 「선학사전」은 한국선종사를 중심으로 禪家의 용어·공안·禪書·禪師 등 9천여 항목을 담게 된다. 그 부록으로는 선종사 연표, 선종 법제도, 선사 목록, 공안 색인, 선종사 지도가 수록된다. “5년여의 작업 끝에 올해 6월 발간된다”고 불지사 고재욱씨(36)는 전한다. 「불교비유 예화사전」과 「불교문화사전」은 각각 일본과 중국의 사전을 토대로 한국불교 관련 항목을 보강한 번역서 내지 편역서. 「불교문화사전」은 불교 교리·종파·인물·사건·풍속·술어·문헌·건축명칭·문학·미술·음악 등 불교문화 전반

불교출판계에 사전·색인·

총람 등 기본자료 편찬작업의

붐이 일고 있다. 올해 안에 10여종이 출간되는 것이다. 자료의

전산화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우리 불교문화와 불교학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이들 작업은

향후 불교연구와 대중의 불교이해에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때늦은만큼 일한 성과를 보여준다.

에 걸쳐 간단명료하게 기술된 책. 가칭 「핵심 불교용어 산책」은 5백 단어를 선정, 간략정확한 주석을 붙이고 역대 經·律·論·史에 정통했던 선인들의 해석을 붙인 체재로 돼 있어 주요 불교용어의 출전과 어원·해석법을 파악할 수 있다.

불교시대사는 5월말경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인명사전이 될 「한국불교인명사전」을 펴낸다. 전래 이후 1990년까지 활동했던 한국불교의 고승·대덕·재가신자 등 1250명의 인적사항이 5백면 내외의 분량에 수록된다. 그와 함께 5월말경 “불교신행이나 교리상의 금급점을 해설”한 「불교신식백과」와 올해 안으로 「한국사찰사전」을 펴낼 예정이다.

대원정사는 올가을 출간을 목표로 구한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나온 불교관련저서·논문·평론 등 학술문헌 일체를 목록으로 집대성한 「한국불교관계도서 총합색인」을 준비중이다. 외국의 한국불교관련논문 목록도 수록될 이 색인집의 실무는 동국대 도서관 열람과장 이철교씨가 맡고 있으며 6백면 내외의 3권 분량에 이른다. 단행본 7천종, 학위논문 1천오백편, 일반논문 만편, 잡지기사 만 오천 쪽 등 총 3만 항목이 수록된다. 이철교씨는 우리나라 불교문헌 목록 및 색인은 東大 불교씨클 ‘비구니회’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의 한국학 도서목록 중 불교부분만 발췌해 엮은 「불교도서목록」(대원정사)이 유일한 것이었다고 전한다. 한편 「총합색인」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동국대도서관 내에 단말기를 설치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원정사는 이 색인집 외에 동국대 정승섭교수(인도철학과)팀에게 의뢰, 한국불교의 현실과 불



불지사의 사전편찬작업 모습.

교학의 수준을 최대한 집약한 「불교사전」 편찬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불교사전이 「望月」「織田」등 일본의 것을 무분별하게 베껴온 관행을 반성하고 한국불교의 역량을 한껏 수합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대원정사 고명석(35)씨는 설명한다.

불교계 전체의 역량 실은 사전 요구돼

이들 출판사들의 인명사전·용어사전·도서색인 편찬작업과는 별도로 개별종단 차원의 「총람」도 만들어지고 있다. 한국불교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자료수합 차원의 첫시도인 대한불교진흥원의 「한국불교총람」은 20여년 전부터 기획했다가 3년전에 비로소 착수돼 올 6월말에 간행된다. 종단·법인·단체기관·사찰·인명 등이 망라됐다고 불교진흥원의 안병인씨는 소개한다. 불교계에서 조계종에 이어 두번째 교세를 자랑하는 태고종에서 펴내는 「한국불교태고종총람」은 개별종단이 발행하는 최초의 연감. 태고종은 이 연감에 각종 단체의 현황과 함께 태고사 등 전국의 태고종 사찰 2천6백 곳의 주소·전화번호 등을 수록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밖에 불교학술단체인 伽山불교문화진흥원이 독자적으로 진행해온 「한국불교대사전」과 동국대 정승섭교수가 물밑준비를 하는 「불교사상사전」은 그동안 우리 불교학이 축적한 연구업적을 총체적으로 집약하는 수준높은 사전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불교대사전」은 10여년의 작업을 거쳐 내년 후반에 첫걸음을 선보이고 늦어도 오는 97년까지 8권 전질을 완간할 것으로 알려진다. 「불교사상사전」은 불교용어·개념을 史的으로 정리하는 사전.

인도전통사상과의 관련도 따지고, 인도철학의 술어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이처럼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사전·목록·편람 편찬작업과 함께 불교관련 자료의 전산화작업도 올해부터 시작되었다.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전산화작업과 불교방송의 데이터베이스서비스가 그것이다.

해인사 대장경의 전산화는 “사실상 새로운 대장경을 만드는 일이나 다름없는” 大佛事인데, 실무작업을 전담할 ‘장경연구소’가 설립돼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불교방송의 하이텔을 통한 불교자료 온라인 서비스는 지난 4월30일에 시작했다. BBS 조사자료부 이정 차장(38)이 약 3년간 준비한 사찰·인물·도서목록이 망라돼 있다. 이 서비스는 종교계뿐 아닌 방송계에서도 첫번째로 시도되는 일로서 불교 관련정보의 상호교류와 활용의 측면에서 주목된다.

불교출판계의 이같은 동향은 불교와 불교학의 현대화와 대중화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이야기된다. 불교에 흥미를 지닌 이들의 수요도 많고 불교학의 연구업적도 어느 정도 축적되었기 때문에 만시지탄의 느낌은 있지만 “자료면에서 값비싼 보람을 나타낼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정승섭교수는 “이들 사전이 불교신도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한국불교학 발전에 끼칠 영향은 물론 인접학문과의 협력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서 “불교계 전체의 공동노력에 의한 작업이 절실하다”며 개별출판사 차원의 사전편찬작업이 갖는 약간의 졸속성 출판에 대해 노파심을 전한다.

—김중식 기자